

[국제시평]

중-독 공감대는 서방 '잡음'에 대한 강력한 대응

3일간 중국 도시 3곳 방문, 내각 장관 3명 수행, 지멘스(西门子)·BMW(宝马)·메르세데스-벤츠(梅赛德斯-奔驰) 등 거물급 독일 기업 관계자 동반, 혁신 협력에 초점을 맞춘 기업 참관... 솔츠 독일 총리의 방중으로 연일 서방 여론이 들끓고 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솔츠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북경에서 그를 만났다. 량국 정상은 중-독 관계 정립, 국제 및 지역 화해 등을 둘러싸고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중국은 중-독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충돌이 없고 서로 안보 위협이 되지 않으며 중-독 상호 리의 협력은 '위협'이 아니라 량측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중국과 량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 분야의 량자 대화와 협력을 심화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의 인문 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이는 독-중 량국은 물론 세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량자는 또한 자유무역과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메시지는 중국과 독일이 많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해 완전히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중국과 독일이 전방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오래동안 중-독 관계는 중국과 서구와의 대국 관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량측 지도자들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량국 정부 사이에는 협의 및 전략, 재정 등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 등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중-독 관계의 지속적인 협력의 주요 기조를 보장하였고 중국-유럽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최근 몇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는



4월 15일, 독일 총리 솔츠(앞줄 오른쪽)가 상해 포동신구에 위치한 독일 자본 기업 콰스아태혁신중심을 참관하고 있다. / 신화넷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고 중-독 관계의 발전도 시련에 직면해있다. 솔츠 총리의 이번 방중만 봐도 정치적 잡음이 적지 않게 일었다. 미국의 대 중국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과 독일 내부에서도 이른바 '중국 발전의 위협'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돌고 있다.

결과는 어떠한가? 솔츠 총리의 이번 방중이나 중국 시장을 파고들겠다는 독일 재계의 의사 표명은 중-독 관계의 기반이 굳건하고 독일정부의 대 중국 정책 전반이 리성적이고 실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는 솔츠 총리의 이번 방중은 '지속가능한 공동행동'이라는 주제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일각에서는 자국의 경기 둔화 도전에 대한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등을 위해 독일은 반드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의 정세하에서 어떻게 하면 중-독 관계가 안정적으로서 멀리 나아가게 추동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독일은 중국의 발전이 독일과 유럽의 위협이 아니며 량측 협력의 중요성이 경쟁과 의견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의 기초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독은 경제 무역 협력이 량국 관계의 '압축식' 역할을 계속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 제2대, 제3대 경제체로서 중-독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있으며 량국 시장은 고도로 의존해있고 경제협력의 근성 또

한 단단하다. 현재 5,000개 넘는 독일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대 중국 직접투자자는 동기 대비 4.3% 늘어나고 총액은 119억유로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연방 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독-중 량자 무역액은 2,531억유로로 중국은 8년 연속 독일의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중-독 협력은 량측과 세계에 모두 유익하다. 세계가 혼란스럽도록 중-독은 량국 관계의 근성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과 독일의 상호 성공은 중국-유럽 협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파괴하는 '잡음'도 강력하게 해소할 것이다. / 국제방송

중국 전기차업계

유럽동맹의 반보조금 조사에 객관성·공정성 호소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협회(기계전자상회)는 12일 벨지그 수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

성을 유지할 것을 호소하면서 유럽연합이 무역구제 조치를 취한다면 각 당사자의 리익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WTO 수석 경제학자:

중국, 세계무역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 될 것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랄프 오사 WTO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화통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세계무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지난 10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올해 세계 상품무역역량이 2.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상품무역역량 중 수입은 5.6%, 수출은 3.4%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사는 중국이 세계무역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짚었

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비자 면제 입국 대상국 확대와 중국 출경 관광의 지속적인 회복세 모두를 세계 서비스 무역 성장을 촉진하는 유리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과 계속되는 통화팽창으로 인해 2023년 세계무역역량이 1.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출 주문 지수가 올초 세계무역 회복 조건이 다소 개선됐음을 보여주었으나 지역 분쟁, 지정학적 긴장 국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세계무역 회복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유럽 여러 나라 인사:

비자 면제 유럽국가 확대, 중국의 개방 의지 보여줘



4월 7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경, 천진 관광지로 떠나기 위해 버스 타러 가고 있다. / 신화넷

중국 3월 14일부터 스위스, 아일랜드, 헝그리아, 오스트리아, 벨지그,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일반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비자 면제 유럽 국가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는 중국의 개방 의지와 태도를 보여준다고 량측의 인문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벨지그-중국경제무역위원회 의장 드위트는 복잡한 현 지연정적 상황에서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 출범은 매우 중요하다고 진일보 개방하려는 중국의 심신과 념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면제 정책은 량국 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징표로서 량측이 더욱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헝그리아 외교부장 시야르도 이에 대해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은 헝그리아 관광객과 상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헝그리아와 중국이 직항 항공편 편수를 회복하는 등 조치는 량국과 국민간의 경제와 관광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트리아도 중국으로부터의 '매력 공세'를 느끼고 있다. 오스트리아 KUONI 여행사 고급고문인 곤레비 그루벨은 중국이 오스트리아 민중들에 15일간의 비자 면제 정책을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은 물론 오스트리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자문하는 관

공목적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2025년 봄과 여름의 여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에 더 많은 여행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유럽국가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역시 중국이 유럽의 '비자 면제 모멘트'(朋友圈)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했다.

중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반권권 소지 공민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은 2018년 5월 정식으로 발효되어 올해 5월 6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외국인 사무국 국장 자르코 라케타는 유럽과 중국간의 직항 항공편이 점점 더 많이 개통되고 상호 비자 면제에 대한 편리함에 힘입어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들은 갈수록 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목적지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량국에 가져다준 호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성장 엔진이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중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유럽국가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에 더 많은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제방송

[중국 경제 새 기회 말한다]

독일 전문가: 중국-유럽 화물렬차, 주변 도시에 새 발전 기회 열어줘



2021년 5월 17일, 중국-유럽 화물렬차 '무위남-독일 뒤스부르크' 컨테이너 화물운수렬차가 첫 출발을 했다. / 중국국가철도그룹 란주국 제공

중국-유럽 화물렬차가 독일 루르 지역의 교통 중추인 뒤스부르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선 국가와 도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열어줬다고 독일의 한 교수가 밝혔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의 교수이자 교통시스템및물류학부 주임인 베르트 노체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120개 도시와 유럽 25개국 219개 도시를 연결하는 중국-유럽 화물렬차 프로젝트에 힘입어 뒤스부르크가 중국-유럽간 연결과 무역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뒤스부르크항구의 소유·관리회사인 뒤스포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도시와 뒤스부르크간 운송에는 12~18일이 소요된다.

중국-유럽 화물렬차를 통해 매주 약 60편의 렬차가 뒤스부르크에 도착하며 렬차에 실린 물품은 이후 독일 국내 항구 또는 유럽내 림접 국가로 보내진다.

노체교수는 중국-유럽 화물렬차는 균형잡힌 교통수단이라면서 "선박보다 빠르고 비행기보다는 가격이 저

렴한 철도는 목표적 운송 수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이 중국-유럽 화물렬차의 운행 경로를 따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새 실크로드'를 형성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신화넷

